

Korea Wine Challenge Great Contributors 판티니 그룹

해외 와인 생산자 가운데 지난해 2019년 Korea Wine Challenge(KWC)에 많은 종의 와인을 참가시킨 Contributor로서 이탈리아 중동부 아브루초의 Ortona에 자리하고 있는 판티니 그룹(Fantini Group)을 소개한다.

글 최훈 본지발행인 사진 장영수, 와이넬



Fantini Group

판티니 그룹은 이전까지 Farnese Group으로 알려져 있었다. 새로이 그룹을 'Fantini'로 전이(轉移)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 그룹은 발렌티노 쇼티(Valentino Sciotti, 1960~)가 1994년 창업한 것으로 메인 퀴터는 아브루초의 Ortona에 두고 주로 그의 고향 Abruzzo의 Montepulciano 와인을 비롯해 이 나라 남부 지방, 즉 캄파니아, 풀리아, 바실리카타, 시칠리아 등지의 와인을 빚고 이를 전 세계 유통망에 올려놓고 있다.

사실 남부지방은 기후가 건조하고 땅이 메말라 다른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황량한 들판이 온통 화산토로 덮여 있어 이 고장 사람들은 일찍이 고향을 등지기도 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이 그룹의 경영 전략은 아주 훌륭했다. 캄파니아 베세비우스 화산토에서 피아노 델 체로, 풀리아의 프리미티보, 바실리카타 볼투레의 화산토에서 알리아니코 그리고 시칠

리아 섬의 네로 다볼라 등으로 빚은 와인이 질 좋은 와인으로 재 탄생해 새삼 시장의 타깃으로 등장한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버려진 땅에서 진주를 캐듯 주옥같은 와인을 빚은 것이다. 오래지 않아 이 그룹은 아브루초의 절대적 리더(absolute leader)의 와인메이커로 자리를 굳히고 2019년을 비롯해 3차례나 이탈리아 안에서 훌륭한 생산자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 새해 <Wine Review>에서 현대적 와인을 빚는 여섯 사람의 생산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그룹의 최고경영자를 실은 바 있다.

한국 시장과 KWC

이 그룹이 생산하는 와인들은 현재 '와이넬'을 통해 한국 시장에 들여지고 있다. 모두가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들 중동부 및 남부 지방의 와인이 한국인의 입맛에 딱 잘 어울리고 와인 값

이 비교적 알맞다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착한 와인 값이다.

이 그룹이 큰 기여자로 꼽힌 제일의 사유는 모두 24종의 와인을 참가시키므로 KWC를 빛내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참가한 와인 대부분이 수상함으로서 수상률이 무려 84%에 달하고 있다. 이는 판티니 그룹의 와인이 그만큼 한결 한국 시장의 입맛에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오는 2020년 KWC는 매우 뜻 깊은 해를 맞고 있다. 이 이벤트를 호스팅하는 <Wine Review>가 창간 2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 뜻 깊은 해에 판티니 그룹의 질 좋은 와인이 보다 많이 참여해 이 챌린지를 빛내주기 바란다.

KWC 수상 와인리스트

KWC 2019에 참가한 판티니 그룹의 와인 가운데 비교적 한국 마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와인 리스트를 참고로 적는다. ㉸

No.	와인명	생산지
1	OPI Montepulciano d'Abruzzo Riserva	Abruzzo
2	Fantini Montepulciano d'Abruzzo	Abruzzo
3	Vigneti del Salento ZOLLA Primitivo di Manduria	Puglia
4	Vigneti del Salento I MURI Primitivo Puglia	Puglia
5	Vigneti del Vulture Pipoli Greco - Fiano	Basilicata
6	Vigneti del Vulture Piano del Cerro	Basilicata
7	Vesevo Ensis Taurasi	Campania
8	Vigneti Zabu Impari Nero D'avola	Sicilia
9	Vigneti Zabu IL PASSO Nerello Mascalese	Sicilia